



내가 진짜 기자야

교안작성 : 김혜숙

김해우 글

바람의아이들 | 8,500원 | 고학년

책 소개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 시대!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보와 사실을 접하고 주목할까? 방대한 선택지 중에서 우리에게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전달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신문 기사를 통해 기자들이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논리적으로 풀어낸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읽는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신문을 접한다. 따라서 오늘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진짜 기자야』는 신문과 기자, 기사에 대한 순수한 접근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기자의 직업과 역할에 대하여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보게 한다. 신문과 기사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 어른들과 달리, 신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배우는 어린이의 시선에서 보는 신문은 궁금증과 의문점 투성이다. 6학년 손하늘에게 첫눈에 반해 신문 동아리에 들게 된 5학년 진우에게는 신문 동아리에 들어가는 일부터 기사의 주제를 정하는 일, 기사와 관련된 개념들을 알아가는 것까지 모든 일들이 쉽지 않다. 또 번번이 담당 선생님과 동아리 아이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편집된다. 우여곡절 끝에 신문 동아리는 해체되지만, 아이들과 힘을 합쳐 <우리들 신문>을 발행하기로 한다. '진짜 기자'로서 한 발을 더 준비가 된 진우의 앞날이 더욱 기대가 된다.

활동 목표

1.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편집전과 편집후의 기사문을 비교해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2.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기자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해 보고 '기자'라는 직업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생각 열기

내가 진짜 기자야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답을 써 보세요.

1. 진우가 학교 신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2. 진우의 아빠는 1년 전에 실직을 해서 이곳저곳 이력서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안일을 하고, 대신 엄마가 대형 마트 고객센터에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지요. 진우의 아빠가 실직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3. 학교 체육대회를 마치고 체육대회와 관련한 진우의 기사문에서, 진우는 앞으로 즐거운 체육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나요?
4. 체육대회와 관련한 진우의 기사를 읽고 신문 동아리 선생님과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또 진우의 기사가 상당부분 편집되어 학교 신문에 실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정민 형과 석환 형의 학교 폭력 사건을 홈페이지에 올린 진우 때문에 결국 진우의 엄마는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올린 영터리 글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맘고생이 심했다며 기고만장해서 따지는 정민 형 엄마의 다그침에, 진우 엄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 했나요?

생각 펼치기

기사문 읽기

편집되기 전의 기사

편집 된 후의 기사

학교급식을 개선해 주세요

4월 8일, 4, 5, 6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급식 만족도를 조사했다. 설문지에 답을 해 준 학생은 450명 중에 300명이였다. 이 중에서 250명은 급식에 불만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100명), 맛이 없어서(80명), 신선하지 않아서(30명),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30명) 순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반찬과 국이 자주 나와서 지겹다고 했다. 또 과일이나 야채가 신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가끔 식기에 음식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음식물에서 버리기각, 수세미 조각 같은 게 나오기도 했다.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점심시간!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다양한 메뉴로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깨끗한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주진우 기자)



학교급식에 바란다

4, 5, 6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급식 만족도를 조사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보다 다양한 메뉴를 원했다. 똑같은 반찬과 국이 자주 나와서 지겹다고 했다.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점심시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급식 담당하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기 바란다.

(주진우 기자)

내 기사는 반 토막 나 있었다. 중요한 내용들이 땡땡땡 잘려 나가서 내가 쓴 기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어이가 없어서 신문을 명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도영이가 다가와서 물었다.

- 진우는 소수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담고자, 밤늦게 까지 설문지를 만들고 친구들을 동원하여 설문지에 답을 얻어내어 학교 급식과 관련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과 관련한 진우의 기사는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잘려 나가고 겨우 반 토막의 글만 실렸습니다.

편집 후의 기사 내용은, 많은 아이들이 내놓은 학교 급식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들과 문제점 등이 상당수 생략 되었습니다.

편집되기 전과 편집 후의 글을 각각 비교해서 읽어 보세요. 편집 된 후의 기사처럼, 기사가 왜곡되거나 통제되어 기사화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이야기 해 보세요.



- 진우는 학교 폭력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오른쪽의 글을 읽고 여러분은 ‘누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또 A에게 내려진 전학 처벌은 합당한 것인지도 이야기 해 보세요.



누가 가해자? 누가 피해자?

얼마 전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 A에게 전학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가해 학생 A와 피해 학생 B는 친한 친구 사이였다. 갑자기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던 A는 B가 새로 산 핸드폰을 자랑하는 게 알아챘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B의 핸드폰을 훔쳤다. A는 급세 후회하고 도로 갖다 놓으려고 했으나, B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아 버렸다. B는 A의 도둑질을 눈감아 주는 대신, A에게 공부습관을 시키거나 숙제를 맡기기 시작했다. 또 친구들 앞에서 A를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다. A는 화가 났지만 B가 자신의 잘못을 소문낼까 봐 알았다. B가 지난 어느 날, A는 할지 못하고 B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가해자가 된 A는 피해자 B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어 봐야 하는 건 물론이고 전학 처벌까지 받았다.

자,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A에게 내려진 전학 처벌은 당연한 것일까?

(주진우 기자)

- 하지만 진우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실을 전교생에게 알려서 석환 형으로부터 항의를 받습니다. 만일 내가 기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석환 형을 도울 지 자신의 대처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언론의 자유 자유롭게 말해요

다음 글을 읽고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지 그 뜻을 쓰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꼭 필요한 이유에 밑줄을 긋고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 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론의 자유'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언론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해요. 책이나 신문, 전자출판물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연극, 영화, 음악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의 하나예요.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도 꼭 보장되어야 하지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그 사회는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가 되려면 언론의 자유가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문이나 방송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내거나,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편집해서 보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비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아마 진실을 까맣게 모른 채 살아가야 할 거예요. 당연히 비리를 바로잡을 기회도 갖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거예요. 또 억울하게 고통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겠지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다고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학급신문이나 학교신문 만드는 데 참여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누구의 간섭 없이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었나요? 내 생각에는 유익한 내용 같은데 선생님이 신문에 실으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나요? 혹은 어른들이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은 적은 없었나요?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어려운 말이 아니예요. 생활 속에서 항상 존중받아야 할 나의 권리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예요.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답니다.



'언론의 자유'란, →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

『내가 진짜 기자야』는 학급 기자로서 그리고 한 소녀를 짝사랑 하는 소년 진우의 성장기를 보여줍니다. 비록 매번 자신의 기사가 편집되지만, 진우는 놀랍고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수많은 장애물과 실패 앞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며 더 노력하여 앞으로 한걸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과연 어떤 직업일까요? 책이나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기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등 기자에 대해 조사 해 보세요.

01. 기자는 어떤 일을 할까?

02. 기자가 되려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자



03. 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04. 기자와 관련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05. 기자와 관계있는 주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신문: 새로운 소식이나 견문,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
